

# 일본의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 및 추진사례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 수 희 전문연구원

## 목 차

1. 들어가며 .....	1
2.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 주요 내용 .....	1
3. 일본의 지방창생 추진 사례 .....	4
4. 시사점 .....	10

-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0)
  -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며,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32만명으로 800만명을 돌파하였음(김대영, 김종현, 2021)
-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며,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제주지역 내 인구소멸위험은 2010년 기준 ‘보통단계’에서 2019년 ‘주의단계’로 인구소멸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고태호, 2020)
  - 제주지역은 2009년 이후 순이동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데 비해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2040년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 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마다 히로야, 2014; 차미숙, 2016)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4년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BRIEF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문제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 및 추진사례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 주요 내용<sup>1)</sup>

###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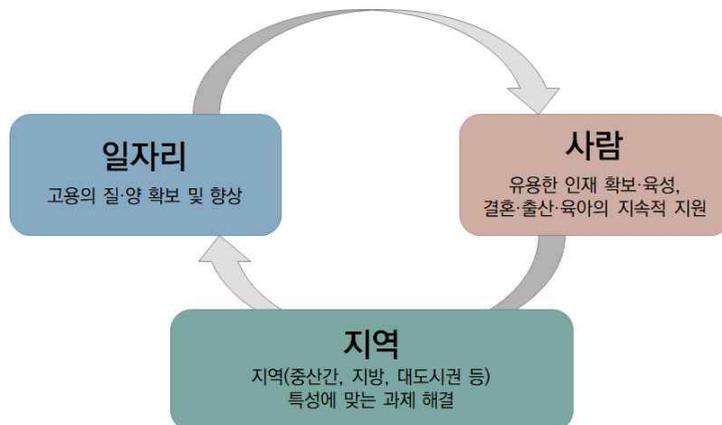
- 일본은 2008년에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래 추계에 따른 총 인구는 2050년 1억명, 2100년에는 5천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 차미숙 (2016.2),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경제력의 쇠퇴로 인하여 미래의 일본 경제 사회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임정민, 2019)

- 지방도시에서는 향후 30년간 20~30% 정도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15~64세 인구는 30~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3대 도시권 중심부의 고령자 수는 250만명 증가, 근교지역에서는 340만명이 증가하여 대도시 고령자 수의 증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일본의 전 총무장관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소멸지자체리스트’를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전체 약 1,72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96개(약 51%)를 소멸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가운데 523개는 인구 1만명 이하의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지방소멸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이며, 지방인구의 대도시권 이동은 향후 지방인구의 격감과 대도시권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인구감소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측함
-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창색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아베정부는 일본창생=지방창색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방창생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4년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지방창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 법제정의 목적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과소화, 대도시의 과밀화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창생을 추진할 전담기구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창생정책의 기본방향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그림 1>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



## 2) 제1기(2015~2019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 추진내용

- 활력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위한 장기비전으로 인구감소문제 극복과 성장력 확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함
  - (인구감소문제 극복) 2060년 1억명의 인구확보와 출산율 1.8% 실현,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을 해결
  - (성장력 확보) 2050년 실질 GDP 성장률 1.5~2.0%를 유지
-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목표는 ① 지방 일자리 창출, ② 지방 이주 및 교류 촉진, ③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④ 마을만들기임
- 지방생활실현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U·I·J턴 대책의 근본적 강화, 여성 및 고령자 등의 신규 취업자 발굴, 지방의 외국 인재 활용, 효과적·전략적 정보 제공 등을 정책패키지로 책정하여 실행함
  - U턴 : 지방→도시(출신지)→지방 / I턴 : 지방→도시 or 도시→지방(연고 없는 지역) / J턴 : 지방→대도시→지방근교 중도시(출신지 언저리 도시)
-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 추진 결과, 인구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 청년 취업률, 방일 외국인 방문객 수 등 일자리 부분에서 성과를 보임

<표 1> 제1기(2015~2019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 주요 내용

장기비전	인구감소문제 극복, 성장력 확보	
	기본목표	주요시책
제1기 종합전략	① 지방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li> <li>• 인재의 지방유입, 지방인재 육성, 지역교용대책</li> <li>• ICT 활용한 지역 활성화</li> </ul>
	② 지방 이주 및 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 촉진(U·I·J턴)</li> <li>• 일본판 생애활약마을 추진</li> <li>• 기업의 지방거점강화, 지방채용 및 일자리 확대</li> <li>• 지방대학 활성화</li> </ul>
	③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용대책 추진</li> <li>• 결혼·출산·육아 지원</li> <li>• 일-기정 양립 실현(일하는 방식 변화)</li> </ul>
	④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거점 형성 지원 및 기존 자산(stock)의 관리 강화</li> <li>• 지방도시에 경제·생활권 형성</li> <li>• 대도시권에서 안심 생활기반 확보</li> </ul>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 3) 제2기(2020~202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 추진내용

- 제2기(2020~202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은 미래에도 활력있는 지역사회실현, 도쿄권 일극 집중 시정을 정책목표로 설정
- 제1기의 4가지 기본목표를 유지하면서 2개의 횡단목표로 ① 다양한 인재의 활약, ②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을 추가함
- 2기 창생정책에서는 지방으로 사람·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Society 5.0 기반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의 매력 향상을 유도함
  - 관계인구는 지역 이주자나 관광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지칭하며, 농산어촌체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 기업 인재육성 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짐

<표 2> 제2기(2020~202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 주요 내용

장기비전	미래에도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 도쿄권 일극 집중의 시정		
	기본목표	주요시책	횡단목표
제2기 종합전략	① 지방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산업을 활용한 지역경쟁력 강화</li> <li>• 전문인재의 확보·육성</li> <li>•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취업환경과 담당자 확보</li> </ul>	<b>① 다양한 인재 활약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하는 지방창생 추진</li> <li>•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추진</li> </ul>
	② 지방 이주 및 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 추진</li> <li>• 청년의 교육·취업에 의한 지방정착 추진</li> <li>•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li> <li>• 지방으로 자금의 흐름 창출·확대</li> </ul>	
	③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육아 지원</li> <li>• 일·육아 양립</li> <li>•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지역어프로치) 추진</li> </ul>	<b>② 새로운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Society 5.0 추진</li> <li>• 지방창생 SDGs 실현 등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li> </ul>
	④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마을의 기능 충실</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지역 형성</li> <li>•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li> </ul>	

차미숙 (2020),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 3. 일본의 지방창생 추진 사례

### 1) 지방 일자리 창출

- 고치현(高知県) 쓰노초(津野町) 토코나베집락(床鍋集落) 사례<sup>2)</sup>
  - (추진배경) 고치현 중서부에 위치하여 행정서비스로 거리가 먼 취락이며, 초등학교가

2) 정운선, 윤기확 (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폐교하고 1995년부터 토코나베집락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주민 스스로 대책회의체를 만들어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함

- (추진내용)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식사공간, 숙박시설과 농산물 선과센터를 설립함
  - 폐교를 정비하여 2003년에 ‘숲의 동우리 상자’를 개소하였고, 농산물선과장을 운영하였으며, 농산물선과장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출하활동을 통해 소득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성과) 연간 약 600~1,000명이 숙박하고 있으며, 점포 매상도 연간 400만엔 정도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과소지역 자립 활성화 우량사례 총무대신상」을 수상함

○ 사이타마현(埼玉県) 오가와마치(小川町) 사례<sup>3)</sup>

- (추진배경) 도쿄에서 전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3만 6천명이 거주하는 작은마을로 ‘유기농업의 고장’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꾸준한 연계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추진내용) 시모사토(霜里) 농장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유기농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오가와와 천연주’가 지역특산품으로 탄생하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지역활성화 기반으로 자리잡음

- (주요성과) 외부의 자원과 기술,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으로 순환형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100% 계약재배를 통해 일반가정과 식당, 지역기업, 일반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음



<그림 2> 쓰노초의 농산물선과센터(좌) 및 오가와마치의 유기농식당(우)

자료 : (좌)<https://okushimanto.jp/archives/23035>; (우)<https://finefine.localinfo.jp/posts/519313/>

## 2) 지방 이주 및 교류 촉진

3) 서귀포시 (2020), 「대천동 지역발전 계획」



- 도쿠시마현(徳島県) 가미야마초(神山町) 새틀라이트(위성) 오피스 사례<sup>4)</sup>
  - (추진배경) 가미야마는 인구 약 5300명의 작은 시골마을로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있었으며, 폐 전통가옥과 상공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새틀라이트(위성) 오피스 프로젝트를 추진함
  - (추진내용) 지역의 98.8%가 고속 브로드밴드환경(인터넷 고속, 대용량 통신)이 구축되어 ICT 벤처 계열 기업의 유치와 도시에 본사를 둔 회사 사무실과 사원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오피스 개보수는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입주기업은 월 2만엔의 사용료 지불하여 이용하고 있음
  - (주요성과) 도쿄와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가미야마에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본사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입주기업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200명이 넘는 이주민이 새로 유입되었고, 이 중에서 약 70%가 20대~30대로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있음
    - 국내외 예술가를 주민이 직접 뽑아서 체류하게 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운영, 대도시 벤처기업의 위성사무실 10여개 유치,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지역재생전략 수립,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설치, 산지의 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푸드허브 프로젝트(Food Hub Project) 식당 운영, 공동주택 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고치현(高知市) 시만토초(四万十町) 사례<sup>5)</sup>
  - (추진배경) 시만토초는 2006년 3개 지역(나카토사, 스노, 유스하라)이 합병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진학·취업에 따른 젊은 층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자 UII턴 수용을 위해 적극적인 이주·정주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추진내용) 시만토초는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주상담·정보제공, 체제체험시설 운영, 이주지원주택 및 중간관리주택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주촉진을 위해 청년 정주촉진지원사업(40세 이하 대상 주택취득비 100만엔 상한), 가족지원사업(상한 100만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체제체험시설에는 체재체험주택과 체재형 시민농원이 있으며, 체재체험주택은 장래 이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로 1개월~3개월까지 이용가능하며(2017년 기준 3채 보유),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과 노후우를 제공하는 시설로 최장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함

4)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福岡由美 (2017), 「地方創生の成功例・神山町はどのようにして移住者を惹きつけたのか? ①」

5) 相川俊英 (2014), 「政府が模索する地方創生の手本は高知の寒村にあった視察・研修が殺到する「四万十ドラマ」ができるまで」;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 이주지원주택은 시만토초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다음 내부수리를 통해 실제 이주희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2년간 거주가 가능함(2017년 기준 5채 보유)
- 중간관리주택은 마을 내 빈집을 대상으로 시만초와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소유자가 시만토초에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개보수작업을 통해 이주·정주 희망자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대여하는 정책임(2017년 기준 17채 보유)
- (주요성과) 시만토초의 이주관련 상담실적과 실제 이주는 매년 증가하여 공급주택이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빈집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2016년 지역브랜드조사에서 36위(시코쿠 내 1위)를 평가받아 지방자치법 시행 70주년 기념 총무대신 평가를 받음



<그림 3> 가야가마의 엔가와오피스 전경(좌) 및 사만토 체재체험주택(우)

자료 : (좌)<https://wirelesswire.jp/2019/10/72412/>; (우)<https://www.furusato-web.jp/topics/p43219/>

### 3)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지바현(千葉県) 나가레야마시(流山市) 보육스테이션 사례<sup>6)</sup>
  - (추진배경) 근무시간이나 근무 이동경로 등에 따라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스테이션에서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시내 주요역에 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시내 어린이집으로 차량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700m 거리가 떨어져있거나 15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취업 등에 이유로 등하원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아동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 가능
  - (주요성과) 육아세대의 유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에서 이용에 대한 신청 및 면접을

6) 流山市, <https://www.city.nagareyama.chiba.jp/life/1001107/1001188/index.html> (2022.12 기준)

실시하고, 행정의 보조금 지원 없이 요금수입, 관계자 보조금 등으로 자립적인 사업 운영이 이어지고 있음

- 홋카이도(北海道) 야쓰자와베초(厚沢部町) 보육원유학 사례<sup>7)</sup>
  - (추진배경) 야쓰자와베초는 1960년에 1만명을 넘었던 인구가 2022년 3월에는 3,563명까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마을 밖으로 유출되어 마을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키치하이크)와 함께 육아세대의 단기체류 수용을 시작함
  - (추진내용) 가족이 1~3주간 야쓰자와베초에 체재하면서 아이는 현지의 보육원에 다니면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동반가족은 체류 주택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휴일에는 가족이 현지 생활을 즐길 수 있음
  - (주요성과) 신청이후 100가족 이상 신청이 쇄도하여 1년 예약은 마감되었고, 일이나 가정의 사정으로 이주가 어려운 경우 단기간 체재하여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은 단기체류자의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그림 4> 나가레야마시의 보육스테이션(좌) 및 야쓰자와베초의 인정 보육원 ‘하제루’(우)

자료 : (좌)<https://ons.tkskg.ed.jp/station/>; (우)<https://toyokeizai.net/articles/-/535877>

#### 4) 마을만들기

- 도쿠시마현 미마시 평생활약 거리 사례<sup>8)</sup>
  - (추진배경)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20,000명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이주추진거점을 정비하여 집중적으로 이주자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지역의 빈집으로 이주하도록 함
  - (추진내용) 이주지원 코디네이터와 건강 컨시어지 배치에 의한 생활지원, 고령자 활

7) 笠井 ゆかり (2022), 「人口3590人過疎地の園に通う 保育園留学の凄み」, <https://toyokeizai.net/articles/-/535877>

8) たまこ (2022), 「地方創生の事例10選!ユニークな取り組み・成功の秘訣を紹介」, <https://ikusa.jp/2020052610114/>



약 장소를 만들기 위한 독자 매칭 시스템 ‘시니어 파워 활용 프로그램’ 전개, 시범지역 내 시코쿠대학에 위성사무실을 설치하여 이주자에게 평생 프로그램 제공 등 가마을을 만들어감

- (주요성과) 행정뿐만 아니라 복지협의회, 대학, 의료법인, 현지건축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구축이 필수적임
- 고치현(高知市) 유즈하라초(梶原町) 마을만들기 사례<sup>9)</sup>
  - (추진배경) 유즈하라초는 마을 면적의 91%가 삼림이 차지하는 해발 1,455m의 고원 지역으로 마을의 목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만들어 마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추진내용) 유즈하라마을은 전주를 지중화하고, 쿠마겐코 건축가의 설계로 마을의 중심가에 마을 목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매력 있는 유즈하라 고등학교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지역 내 육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옛 민가를 개보수, 빈집정보 제공, 체재시험주택 제공 등의 이주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마을목재를 활용하여 종합청사, 복합복지시설, 도서관, 마을역, 유키노우에 호텔과 레스토랑, 갤러리 등 통일감과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경관적 매력을 높이고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음
    - 육아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장시간 종일보육, 초중학교 교육 계승, 중학생의 해외 유학제도 등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즈하라 고등학교를 설립함
    - 이주촉진을 위해 이주자에게 인기가 많은 옛 민가의 설비 개보수, 이주·정착코디네이터가 지역의 빈집정보를 제공·연계, 최대 6개월까지 월 1만엔으로 체재시험주택 이용 등의 사업을 운영 중임
  - (주요성과) 2009년 ‘환경모델도시’로 인증받았고, 지역주민 20명 중심의 가이드 조직이 지역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역사·문화 분야의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 8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였고, 5년간(2013~2018년) 175명이 이주함
    - 이주자 홈페이지를 통해 이주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주·정착코디네이터가 이주 정책, 빈집, 지역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지역 자체가 주택을 보수하여 제공해줌으로써 이주자의 고민이 해결되고, 육아 관련 지원이 세세하게 이루어짐
- 이와테현(岩手県) 시나미초(紫波町) 오겔프로젝트 사례<sup>10)</sup>
  - (추진배경) 오겔프로젝트는 행정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관민복합시설로 JR 시나미 중앙역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벌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됨

9)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10) 地域創生コラム (2021), 「視察にオススメ! 地域創生の成功事例3選」, <https://kumamoto-tsukigi.com/media/inspection/>



- (추진내용) 도서관, 마르쉐(시장), 트레이닝 시설, 동사무소 등이 있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인 집합시설이며, ‘시나미초 공민 연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민간 기업의 연계와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이며,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함
- (주요성과) 고용, 인구, 교육, 생산 등 모든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의 계획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정과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됨



<그림 5> 유즈하라 마을 도서관 전경(좌) 및 시나미초 오걸프로젝트 복합시설 전경(우)  
 자료 : (좌)[https://blog.naver.com/nature\\_kochi/222767746235](https://blog.naver.com/nature_kochi/222767746235); (우)<https://ogal.info/project/about.php>

### 4. 시사점

- 일본은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하고 도쿄의 일극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1기 및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종합전략을 마련하였음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전략은 ① 지방 일자리 창출, ② 지방이주 및 교류 촉진, ③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④ 마을만들기를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활성화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일본 지역창생의 성공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1) 지역에 기초한 자원이나 산업 등 지역자원 활용이 중요함

- 고치현 토코나베집락,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농산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고치현 유즈하라초와 같이 지역의 생산물을 가공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례와 같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기초적인 인프라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초기 투자비용 및 위험 장벽이 낮은 장점이 있음
- 지역자원은 물건, 지역 생산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 자연, 사람 등 지역의 매력이 되는 것을 재발견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

## 2) 인구감소시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해야 함

-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 고치현 시만토초, 홋카이도 야쓰자와베초, 도쿠시마현 미마시, 고치현 유즈하라초 사례와 같이 정주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인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위성사무소나 보육원유학과 재택근무 연계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체류인구 적극 유치하거나 체류인구들이 단기·장기적으로 체재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 3) 행정과 주민의 연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제시된 모든 사례에서 민관 연계가 필수적이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민간 기업이나 지역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음
-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자체, 지역주민, 현지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4) 지역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비즈니스모델 필요

-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주민의 생활은 행정서비스 질에도 관련 있어 결과가 바로 도출되지 않음
- 단기적으로 시설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유입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람이 정주하거나 관계인구로 인해 신규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시설유치와 함께 정주인구가 살기 쉽고 관계 맺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전망하고 지속적인 수익화·사업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참고문헌】

고태호 (2020,11),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김영대, 김종현 (2021.9), 「10년 후 '생산인구 절벽' ... 340만 증발」

서귀포시 (2020), 「대천동 지역발전 계획」

임정민 (2019)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책과 사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9),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토론회」  
정윤선, 윤기확 (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차미숙 (2016.2),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たまこ (2022), 「地方創生の事例10選！ユニークな取り組み・成功の秘訣を紹介」  
流山市, <https://www.city.nagareyama.chiba.jp/life/1001107/1001188/index.html>(2022.12 기준)  
笠井 ゆかり (2022), 「人口3590人過疎地の園に通う 保育園留学の凄み」  
地域創生コラム (2021), 「視察にオススメ！地域創生の成功事例3選」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희 전문연구원(064-729-0615)